

역경-불교대중화 '同行'

'우리말 팔만대장경' 출판 35주년

9월 26일 저녁 6시, 한글의 날을 앞두고 뜻깊은 행사가 종로 대각사에서 열렸다. 다름아닌 '우리말 팔만대장경 출판 35주년 기념법회'이다. 지난 60년대 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단행본 <우리말 팔만대장경>의 번역출판을 이끌어 냈으며 지금은 고계 각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 원로회원(?)들이 마련한 행사다. 이날 법회에는 당시 편찬위원이었던 석주, 일타스님 등 원로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윤희스님을 비롯 이 책과 인연있는 여러 불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기념법회에 이어 35년전 당시 대한불교청년회 회장대행직을 수행하며 <우리말 팔만대장경> 출간에 건인 차 역할을 했던 김지경박사가 '남북 통일과 화쟁사상'을 강연했다.

김박사는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은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큰 가르침"이라면서 "35년전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일궈냈던 그 초창심으로 원효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욱 굳은 신심으로 노력한다면 남북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각 신원단체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불교진흥의 길' 세미나에서는 역경과 인재양성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불교포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논의됐다.

경지적,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불교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젊은이들이 신심하사로 일구어낸 <우리말 팔만대장경> 출간은 우리 불교역사에 있어서 일대 사건이었다. 이 책의 출간이후 <불교성전>들이 나왔고, 경전 번역과 불서 발간들이 연이어 추진됐다. 2년 뒤 본격 추진되어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동국대 역경원의 <한글 팔만대장경>역경 사업도 이 책 출간이 계기가 됐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의 번역사업은 6.25이후 흩어져 있는 우리국민의 정신을 한데 모으고, 현대인들에게 불교사상을 전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책 하나 없어서 고민하던 그 시절, 우리 청년불자들이 똘똘 뭉쳐 여러 큰스님과 박사님들의 힘을 빌려 펴낸 것이 <우리말 팔만대장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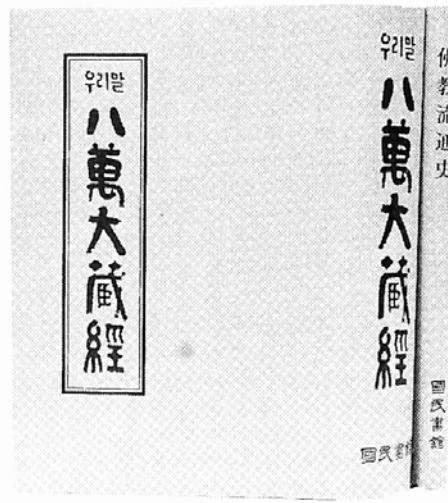
<우리말 팔만대장경>의 출간시 대한불교청년회 총무를 맡았던 이호식씨(한국불교실업인회 회장)의 회고이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62년 5월 대한불교청년회가 추진해 위원장 권상로 박사, 부위원장 윤하스님과 김동화박사를 중심으로 한 23명의 편찬위원회가 1년만인 63년 6월에

세미나 등 열어 새 불교진흥의 길 모색 보급 기대 못미쳐...가로쓰기등 보완 필요

번역출간했다. 당시 불교계의 내로라 하는 학자 23명이 1년 걸려 번역한 이 책의 출간을 앞두고 불교계 여러 학자들이 모여 불교용어표기법에 대한 활발한 토론작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제1권에서 부처님의 일대기 제2권 아함경 제3권 방등경 제4권 반야 계율부 제5권 법화 열반부 제6권 화엄부로 나뉘 구성돼 있다. 또한 별책부록으로 <불교용어사>를 발간,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건너오기까지의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해 색인까지 첨가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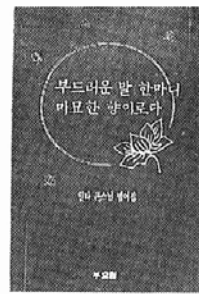
초판이 범용사에서 출간된 후 지금은 국민서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책은 그러나 보급에는 그다지 좋은 성과를 올



리지 못해 지금까지 약 5천부 정도가 팔려나갔다. 따라서 <우리말 팔만대장경> 출간 35주년을 맞아 세로쓰기로 되어있는 기존판집을 가로쓰기로 전환하고, 당시의 고문체에서 현대인들이 보다 쉽게 읽고 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은자 기자

화제의 책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삶의 길 제시

부드러운 말...

일타스님 지음

불법의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의 문을 열고 들어서야 한다. 그렇지만 알 듯 모를 듯 쓰여진 큰스님들의 법문집들을 읽다보면 법문(法門)에 들어서는 일이 그다지 쉽지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이 법문을 듣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많은 불자들을 위해 출간된 이 책 속에는 불자들의 삶의 지표에서부터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방법, 방

그려한 불자들을 위해 일타스님이 펴낸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는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쉽고도 명확하게 펼쳐놓았다. 가까이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많은 불자들을 위해 출간된 이 책 속에는 불자들의 삶의 지표에서부터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방법, 방

은 삶을 여는 계율, 화두드는 법, 해탈수행법,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큰 삶의 길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스님은 이책에서 쓸데없는 망상을 버리고, 부처님께 공부해서 참된 '나'를 찾으라고 불자들에게 말한다. (요람출판사 5천원)

만화로 만나는 부처님 세상

'붓다로 가는 수행' '법화경이야기' 등 3권 선보여



지독스님 글모음집 '죽비깨는 아침'

"새웃입고 외출"

지독스님(송광사)의 글모음집 <죽비깨는 아침>이 우리출판사에서 새롭게 출간됐다.

송광사에서 출간한 스님의 수행생활 이야기와 고승일화 등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이미 7년전 세종출판사에서 출간돼 널리 읽혀왔다. 이것을 우리출판사가 판권을 사들여 스님의 미국에서의 생활이야기들을 첨가하고, 편집도 새롭게 바꿔 선보였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2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우리출판사
3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탄허교립	교림
4	원효	고영섭	한길사
5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	효림
6	인연(작은책)	서정주	민족사
7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계환	시공사
8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변선환	한국신학연구소
9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10	하늘호수로 떠난여행	류시화	열린원

구입문의: (02)737-0695

조각가 강대철씨

산문집에 담은

'세상의 그리운 것들'

세상의 그리운 것들

강대철

한길사

'오운(五韻)' 연작, '화두를 놓친 비구니' 등 불교의 세계관에 기초한 작품을 선보여 온 조각가 강대철씨(50)가 산문집 <세상의 그리운 것들>(한길사 刊)을 펴내 화제다.

이 산문집은 강씨가 지난 82년 경기도 이천 장승백리로 생활터전을 옮긴 후 그곳에서의 15년 삶이 가져다 준 경험과 사유의 기억들을 편안하게 풀어낸 것.

재송화씨 받기들 통해 배운 자연의 섭리, 토담에 깃들여 사는 생명체 발견이 주는 경외감과 화롯불, 아궁이 등 우리 생활에서 점점 사라져 잊혀진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자연적 생명력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질타도 담았다. 또 우리 생활 곳곳에서 제각각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갖가지의 생명체와 사물들이 결국은 모두 하나라는 그의 '끼리끼리생

명법칙'은 불교의 세계관 생명관과 깊숙히 맞닿아 있다.

강씨는 "예술가로서 명예 물질 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정신적인 성공까지 거두지 못한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으로 유유자적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이곳 장승백리로 옮겨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처음 장승백리로 왔을 때 이미 황폐해진 정신을 추스려 자신을 바로 찾는 일이 여간 쉽지않다는 마음의 법칙을 제일먼저 깨달았다고.

이 책은 오랜동안의 명상과 채식을 통해 투명한 삶이 주는 기쁨과 아무것도 걸린바 없이 살아가는 조각가 강대철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은)

가을을 맞아 발간된 문학계간지들이 고은시인 등 불자문인들의 신작을 비롯 이형기, 박상봉씨 등을 집중조명하고 있다.

계간 <시와시화>는 '시와 시인을 찾아서'에서 최근 중국을 다녀온 이형기 시인의 창작 자세와 그의 사상을 고스란히 해부하고 있다.

<문학동네>는 '고아' '저녁' '친구' 등 지난 히말라야 여행이후 더욱 농익은 불교적 정서를 풀린 중기는 고은 시인의 신작시를 실었다.

<작가세계>는 영화 '유리'의 원작자로 유명한 <죽음의 한 연구>의 저자 박

문학계간지 마다

불자문인 신작

상봉씨의 문학세계를 분석했다. 1975년에 발표했던 이 책은 최근 두권으로 편 개정판도 나왔다.

'자정암에서' '인연' '희망' 등 뇌성 마비 장애인 최명숙시인의 불교적 시 세계는 <시대문학>에서 집중조명했다.

이밖에도 <월간 문예2000>에서는 중국현대문예단편 특집을 마련, 티베트를 배경으로 그들의 불교문화속에 녹아든 인물들의 고뇌와 방황을 그려낸 짜시타의 <가죽관에 매달린 혼>을 실었다.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스님. 일타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로 다시금 세우보십시오.

- I.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II.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III. 배움과 삶 / IV.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V.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VI. 화두 드는 법 / VII. 아하반야바라밀
-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B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스님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기도성취 경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 주변의 문화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읽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5 보살계 신행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법(無畏)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육성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